

무공저

기대수명 차이 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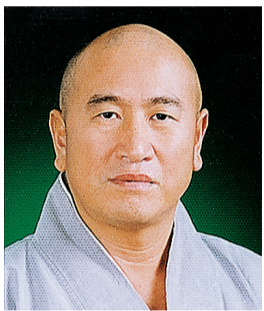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해 세계인의 기대수명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는 이유는 여러 가설들로 설명된다. 가장 쉬운 접근법은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 역할에서 찾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 같은 기대수명 감소가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가가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한 남성은 과도한 음주와 흡연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한다. 그에 비해 여성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성향이 높아 정신적인 문제를 겪을 위험성이 남성보다 적다.

남성과 여성을 가장 확실하게 가르는 것은 성호르몬이다. 모든 생명체의 존재 이유는 종족번식, 후손이 살아남는데 진화의 초점이 맞춰져있다.



중상 (청계사 회주)

여성, 건강해 후손 안녕 보장되게 진화
남성, 정신적 깨달음 위해 심혈 쏟아야

세이다. 여성이 대략 남성보다 6년을 더 산다는 뜻이다. 이러한 격차가 인간 고유의 숙명인지 아니면 개선이 가능한 일인지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다. 남성호르몬은 심장질환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염병과 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 반면 여성호르몬은 세포에 해로운 화학성분들을 걸러내는 작용을 해 오래 젊고 건강하게 지켜 후손을 잘 키우라는 유전자의 명령이 담겨있다.

인류는 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기간을 극대화하려는 열의를 갖고 살았다. 최대한의 수명을 향유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더욱이 남성과 여성은 자손을 낳고 서로를 지키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운명을 지녔다.

결과 여성은 건강해서 후손의 안녕이 보장되도록 우리는 진화한 것 같다. 남성들은 자신의 몸에 어떤 건강상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인식해야 하겠다. 건강식, 운동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육체적·현실적 쾌락과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일하는 데 쓰는 에너지 이상으로 하늘과 자연과 소통하며, 정신적 깨달음을 위해 심혈을 쏟기를 바란다.

어느 한쪽이 일반적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행복과 존엄을 지키는 데도 큰 영향을 준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수명이 긴 것은 거의 모든 문화권,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한결같다. 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수명이 짧을까?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제9회 청계 불교대학 수계식

올바른 행동 통해 참다운 불교인 삶 발심

10월 4일 오후 2시 선불장에서 제9회 청계 불교대학 1학기를 이수한 불자들이 23명과 학장 성행스님, 성견스님, 수인 스님이 동참한 가운데 수계식을 봉행했다.

성행스님은 “계는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내는 기본이 되며, 끝없는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길이고, 성불의 계단을 오르는 사다리”라고 설하고 “과거, 현재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

를 참회하고 삼보전에 맹세하여 청정한 상태에서 수계가 되도록 인도하고 오계를 지켜,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가르침으로 삼고 항상 복을 짓고 참다운 불교인으로 올바른 행동을 통해 불교 정신에 근거하여 살아가겠다고 발심하라”고 설법했다.

불자들은 청정한 마음으로 장교 합장하여 참회진언 염불속에 보살은 오른팔에 거사는 왼팔에 연비를 받고 부처님께 귀의하

고 각자의 불명이 기록된 수계첩을 받아 지냈다.

지난 6월 21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법사 수인스님의 강의와 교학처(총무 연문심) 임원들의 지도로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까지 선불장에서 사찰예절과 불교입문 개론을 공부하며 심인불 힐링 명상수업, 연주 만들기, 청계사 탐방 등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청계사 불교대학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은 통합교육과정으로 불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더불어 경전 공부, 기도정진, 선 수행 특강, 수행 활동을 돕는 실천중심의 교육으로 학습과 봉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글·사진 서용화수)



◆참다운 불교인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 속에 연비를 받은 후, 주지 성행스님으로부터 수계첩을 받고 있는 수강생들.



생활의 지혜

이야기 백유경

두 개의 다리를 여덟 개로 늘린 농부

어떻게 보리를 이리 무성하게 키웠나

○……알면서도 짓는 죄와 몰라서 짓는 죄 중에 어느 죄가 더 무거운가에 대한 밀린다왕과 나가세나존자의 대화가 유명하다. “대왕이여, 뜨거운 불꽃이 치솟는 쇠덩어리를 한 사람은 모르고 잡았도 또 한 사람은 알고 잡았다면 어느 쪽이 더 심하게 손을 데겠습니까?” “존자시여, 모르고 잡은 사람이 손을 더 심하게 데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모르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의 재앙이 더 큼니다.”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의 과보가 더 크고 무거운 것은 모르고 지은 잘못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기에 계속해서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옛날 어떤 농부가 고향에 갔다가 보리 싹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그 주인에게 물었다. “어떻게 보리를 이렇게 무성하게 키웠는가?” 주인은 대답하였다. “땅을 편편하게 고르고 거기에 분노와 물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는 곧 그대로 물과 땅을 밭에 주고, 거기에 종자를 뿌리려 하였다. 그러다가 문득 제 밭로 땅을 밟아 땅이 딱딱해져서 보리가 나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나는 평상에 앉아 사람을 시켜 밭에 가고, 그 위에서 종자를 뿌리는 것이 좋겠다.” 그리하여 곧 네 사람을 시켜 한 사람이 평상 다리 하나씩 들게 하고 밭에 가서 종자를 뿌렸다. 그러자 땅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보리가 나지 않을까 염려되어 두 개의 밭을 여덟 개로 늘렸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비웃었다. (해설) 범부들도 그와 같다. 이미 계율의 발을 다루어 점차 좋은 씨이 나게 하려면, 미쁘게 스승에게 내야 가 뚫고 그 훈계를 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그것을 아기고 온갖 악을 많이 저어 계율의 씨이 나지 않게 하니, 그것은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두 개의 밭을 두려워하여 도리어 여덟 개로 늘린 것과 같다.

○……모르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냉철하게 살펴보면 모든 죄악의 뿌리는 모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탐욕스러운 마음도 결국 존재의 상관성을 배제한 채 자신 밖에 모르는 것에서 출발한다. 화내는 마음도 결국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옳다고 고집하는, 자신 밖에 모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즉 자기 뜻대로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이다.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의 행위가 이 사회를 얼마나 부패시키는지 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르고 행한 것에 대해서 쉽게 용서해준다. 그러나 모른다는 것은 양심의 문제로서 더 큰 죄악임을 알아야 한다.

법보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계사보 법보시를 받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50부:10,000원 100부:20,000원

- \*법보시 명단
\*서울구치소 박경선 50부 박유진 150부
\*안양교도소 일동포장기계 150부 김희용 50부 조수환 50부
\*수원구치소 김항수 50부 김영현 50부 김민준 50부
\*청주여자교도소 정중순 50부 김대희 50부 조용민 100부
\*경주 교도소 이갑숙 50부 이근혁 50부 이교은 50부 윤석호 50부
\*여주교도소 손준형 100부
기업은행 109-058786-01-040 (예금주:청계사 출판부)

5대선사 다례재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경허 대선사의 출가사찰이며 경허 대선사의 법맥을 이어 불교 중흥의 꽃을 피운 만공·보월·금오·월산 대선사의 뜻을 기리는 다례재를 봉행합니다. 무부 동참하시어 대선지식의 수행력과 가르침을 기리며 신심을 고취시키는 인연을 맺으시길 발원합니다.

- 일 시 : 불기 2566년 10월 25일 (음력10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 극락보전

영가 합동 천도재

본 청계사에서는 가을을 맞이하여 선망부모의 극락왕생과 미리 수행과 공덕을 닦는 합동 천도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수희 동참하시어 참다운 수행 공덕을 쌓아 가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10월 27일 (음10월 3일) 목요일 10시 •장 소 : 극락보전
•동참금 : 30만원 •계좌번호 : 109-058786-01-242 (기업은행 청계사)
•연락처 : 신도회 총무 (010-6525-3425)

석굴암 철야 정진기도

- 일 시 : 11월 11일~12일 금~토요일 (무박2일)
•출발 : 11일 오후2시 인덕원 미가참치 앞 출발
•장소 : 경주 석굴암(철야기도 후 불국사 새벽예불) 철야기도 후 합격다라니 드립니다.
•동참금 : 20만원 •일반 신도님도 신청가능하며 축원만 올리실 분 축원비 5만원
•계좌번호 : 109-058786-01-242 (기업은행 청계사)
•연락처 : 총무소 및 신도회 총무 (010-6525-3425)

학업(대학수능) 성취 회향기도

- 일 시 : 11월 17일 목요일 오전8시 40분 ~ 오후5시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동안거 100일 기도

- 본 청계사에서는 동안거 맞아 100일 기도를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입재 : 불기 2566(2022)년 11월 8일(음력 10월 15일) 화요일 사시
•회향 : 불기 2567(2023)년 2월 5일(음력 1월 15일) 일요일 사시
•장소 : 극락보전 •동참금 : 5만원

### 절요

절요는 강원 사십과의 교과목으로 중요한 불교 입문서이다. 원제는『법집별행록절요명인사기(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이다. 고려 때 지눌스님이 당나라 종일 스님의 <법집별행록>의 복잡한 내용을 줄이고 자신의 견해를 써 넣어 편집했다. 지눌스님이 입적하기 9개월 전쯤 마지막으로 펴낸 책으로 선의 종착지로 가는 길에 이르는 참선수행의 올바른 과정을 담고 있다. 후학들에게 부처님의 마음자리 공적영지를 단숨에 알고, 그 길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차근차근 나아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 돈오점수를 강조하며 정혜쌍수를 역설하였다. <편집자주>

## 2. 諸宗의 大意總判

### ① 禪門密旨

別行錄에 이르되, 「禪의 뜻은 속으로 관조하는 것이라 붓으로 쓸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다. 말은 비록 미치지 못하나 오히려 억지로 말할 수 있지만 붓은 가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붓으로 쓰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이제 부득이 하여 쓰는 것이니 마음을 비추어 보고 글에 걸리지 말라」하였다.

### ② 荷澤宗의 大意

「하택의 뜻은 말하자면 꿈과 같다고 여러 성인들이 똑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망령

자 곧 깨달으면 깨달음 그것이 곧 없어질 것이니 닦고 행할 묘한 문이 바로 여기 있다. 그러므로 비록 닦아 만행을斷 갖춘다 하더라도 오직 無念으로서 으뜸을 삼는 것이니 단지 생각만 없게 되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저절로 없어지고 가볍게 여기는 지혜(悲智)가 저절로 더욱 밝아지며 죄업은 저절로 끊어지고 공덕의 행은 저절로 늘어날 것이다.

解에 있어서는 곧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것을 보고 行에 있어서는 닦음 없는 닦음(無修之修)이라 할 것이다. 번뇌가 다할 때에 생사가 끊어지고 생명이 모두 없어지면 고요한 빛(本體)이 앞에 나타나 끝없는 묘한 작용이 생길 것이니 이것이 곧 부처이다.」

### ③ 北宗의 大意

「北宗의 뜻은 중생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깨달음의 성품은 거울에 밝은 성품이 있는 것 같고 번뇌에 덮여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거울에 메가 끼어 어두운 것 같다.

만약 言教를 의지하여 망령된 생각을 쉬어 생각이 다 없어지면 마음의 성품이 깨달아 알지 못하는바가 없는 것이 拂子로 덮인 티끌이 털어 다하면 거울의 본체가 밝고 깨끗하여 비치 않는 것이 없는 것 같다.」

### ◎ 圭峰스님의 諺

평한다. 「이것은 단지 染淨緣起의 相이며 反流背轉(생사유전을 배반하고 염정습기를 등진 것)의 門이라 妄念이 본래 없고 심성이 본래 깨끗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깨달음이 이미 철저히 못한데 수행인들이 어찌 참되다 하겠는가?」

모든 모양의 공한 이치를 깨달으면 마음은 저절로 생각이 없어질 것이고 생각이 일어나

덕인스님 <불국사 승가대학학장>

## 방편의 바다-비유의 가르침

# 법화경

### 오백제자수기품(五百弟子授記品) 줄거리 <상>

이 품에서 부루나 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의 설법이 때와 장소, 그리고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 설해지는 것을 알았고, 또 여러 성문 제자들에게 수기하심을 보았으며, 부처님과 중생들의 인연이 금생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득한 전생의 깊은 인연임을 알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부루나 존자의 다짐생래 공덕을 찬탄하신다. 부루나 존자는 과거 90억 부처님의 처소에서 불법을 지키고, 능변으로 설법해서 무량아승지 사람들을 교화하여 아늑다사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키게 했다고 하신다. 부루나 존자는 과거 7불 때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설법제일로 불법을 펼치며, 무량아승지경 지난 후에 범명여래(法明如來)라를 이름으로 성불하여 할하사 같은 삼천대천세계로 불국토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루나 존자에게 수기를 내리신다. 이로써 부루나 존자는 설법 제일로 부처님의 10대제자의 한 사람이 된다.

이어 그 자리에서 부루나 존자를 부러워하는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을 안 부처님은 그들 모두에게 똑같은 수기를 내리신다. 1200제자중 부루나 존자가 먼저 수기를 받고 나머지 아라한들이 이다 수기를 받았기 때문에, 수기 받은 제자들의 숫자를 정확히 표시하면 1200제자 수기품이라고 해야 옳다. 그러나

「법화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영축산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경전입니다. 정식 명칭은 『묘법연화경』으로 제목에 연꽃의 이름이 들어간 유일한 불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들고 지친 말법 시대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법화경』을 수시로 외고, 쓰고, 전하면 인생살이가 한결 흥분해져서 좋습니다. 절망하거나 우울한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에는 빠져나갈 문이 우리를 향해 열려있기에 그 문을 열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 『법화경』 속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중국의 대표적 불경연구가 페이옹 교수의 저서 『법화경 마음공부』를 중심으로 편집부에서 정리해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처님께 여쭙는다. 이 설화는 법화철유의 다섯 번째 비유 이야기로 '의주(衣珠)'라고도 표현되는 비유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한 가난한 사람이 친구의 집을 찾아갔다가 술 대접을 받고 가난한 친구는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버렸다. 그 집 주인은 급한 일이 있어 잠자는 친구를 두고 밖에 나가게 되었다. 그는 나가며

집을 찾아왔을 때 그대의 간고한 생활을 밧고 안락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대의 옷 속에 값진 보배를 달아주었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서 빨리 그 보배 구슬을 팔아 안락한 생활을 하도록 하라고 알려주었다는 이야기이다.

### “설법 제일 부루나 성불해 불국토를 이룰것” 500제자 모두 보명여래(普明如來) 이름받아

1200제자 중에서 특별히 500제자들이 보명여래(普明如來) 라는 같은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백제자수기품'이라고 이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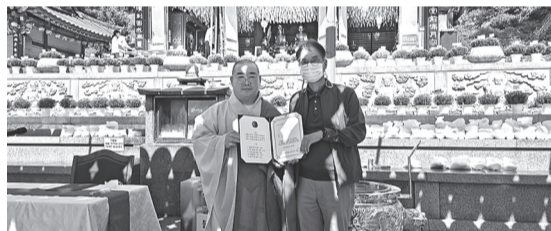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은 오백 아라한들은 뿔 듯이 기뻐하며 자신들이 아라한과를 구경의 열반을 얻었다고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해서, 유명한 '의리계주(衣裏繫珠)'의 비유로 부

그 친구의 초췌한 모양이 불쌍하여 친구의 떨어진 옷 속에 값진 보배 구슬을 달아주고 나갔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 옷 속에 보배 구슬을 단 것도 모르고 잠이 깬 뒤 그 집에서 나가 이곳 저곳을 방황하며 고생스러운 생활을 계속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때, 우연히 옛날에 찾았던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가난한 친구의 남루한 모습을 보고 자네가 우리

오백제자들은 이 '의주'의 이야기를 부처님께 사죄하면서 자신들이 부처님의 일승법을 알지 못한 것은, 마치 그 술 취한 사람이 옷 속에 보배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수기라는 말은 수기(授記)라고 쓰기도 하고 수기(受記)라고 쓰기도 하는데, 수기(授記)는 부처님이 주시는 경우, 수기(受記)는 제자가 받을 때 쓰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제자가 이해한 바를 부처님께 여쭙 다음에 부처님이 제자에게 수기하시는 것이 보통인데, 오백제자의 경우에는 일반과는 달리 부처님이 수기하신 뒤에 제자가 이해한 바를 부처님께 여쭙고 있다.

### 뉴스&뉴스

#### 9월 초하루 법회



지난 9월 26일 (음력 9월 초하루) 청계사 야외법당에서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사시 예불을 마치고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주지 스님은 “소소한 것에 만족할 줄 알며(少慾知足),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知足常樂), 탐·진·치의 본성을 누르고 참고 덕을 쌓고, 복을 지으며, 서로 소통하고 함께 공유하며 행복을 찾아가자(常樂我淨)”라고 법문하며 법회를 여법하게 마쳤다.

이어 목어본됨, 목어1팀, 목어3팀이 통합된 진여회 회장(김자행)에게 임명장 수여가 있었다. 또한 목어2팀은 무여회로 명칭 변경했다. <글 서용화수>

#### 수능 전 50일 특별기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50일 앞둔 지난 9월 29일 주지스님과 기도스님, 수험생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라니, 광명진언, 학업성취 발원문 특별기도를 봉행했다. 이날 주지 성행스님은 “초조하고 긴장된 마음을 간절히 기도와 발원으로 여유로운 마음과 행복을 가지게 되면 수험생들에게 전달되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남은 기간 동안 기도에 정진해 달라.”고 했다. 학부모들은 스님들과 함께 목청 높여 기도를 하며 부처님의 가피 속에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자녀들의 합격 발원을 했다. 총 신도회장(홍무상행)은 수험생 학부모 한명 한명에게 합격 단주를 나눠주며 “시험 당일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했다. <글 주향진성>

#### 희망나래 바자회 성황리 마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관장 지현스님)은 지난 10월 1일 장애인복지 기금마련을 위한 희망나래 바자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글 심대덕성>

#### 제37대 총무원장 취임식

지난 10월 5일 조계사 대웅전 특설무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취임법회에 조계종 원로의장 대원 대중사를 비롯한 스님과 불자(정



계사 불자40여명, 정관계인사 등 1만여 명이 동참해 여법하게 봉행했다. <글 황청량성>

#### 제18회 중회의원 당선

지난 10월 13일 전국 교구본사에서 제18대 중앙중회의원 교구 직선식 중앙중회의원선거에서 주지 성행스님은 4선을 기록하며 제11교구 불국사 중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제18회 중앙중회의원의 임기는 11월 9일부터 시작된다. <글 조여래장>

#### 제5회 용주사 수륙대제



지난 10월 15일 제5회 용주사(제2교구본사) 수륙대제에 총무 성경스님과 신도30여명이 참석했다.

수륙제는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외로운 유주무주의 고혼들을 널리 구제하기 위하여 불법을 감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불교의식이다. <글 조여래장>

## 사진으로 보는 불교대학 템플스테이

10월18일~19일 1박2일 일정으로 불교대학 수강생과 임원들이 법사수인스님을 모시고 템플스테이를 다녀왔습니다.



기린을 그린 후 서로 맞춰보기



수인스님 지도로 명상을 하고 있는 수강생들



법당에서 기도스님과 기도 중



수강생들이 문수전으로 발길을 향하고 있다.



스님의 지도하에 발우 공양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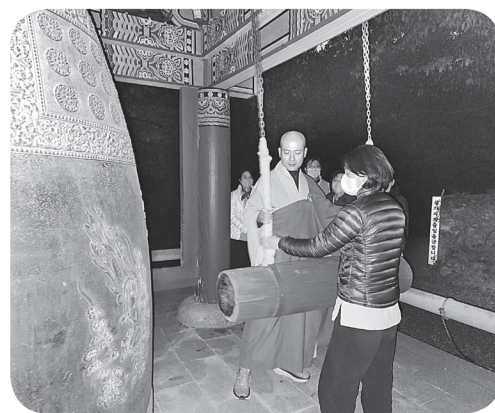
반야사 주지 명원스님과 차담



대웅전 앞에서 단체사진



해설사로부터 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저녁 예불 전 타종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



돌다리를 건너 관세음보살을 뵈러 가고 있다.



# 마음따라 찾아가는 산사순례 ⑩③

관음성지 ㉔

## 대구 용연사

한국불교 대표 종단 조계종 사찰은 전국에 3천 사암에 달 합니다. 이 사찰은 행정구역상 25교구로 구성되며 각 교구마다 본사가 설치되어 소속된 말사 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기획지면으로 떠나는 '108성지 순례'는 25개 교구본사를 순례하고 '관음성지' '지장성지' '미륵성지' 주요 영험 기도처별로 찾아 나서, 신도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사리를 도난당하였다. 그 후 사명대사에 의해 다시 수습되고, 또 서산대사의 명에 따라 한 함은 태백산 보현사에, 나머지 한 함은 통도사에 안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란과 사명대사의 입적으로 실전에 옮기지 못하고 치악산 각립사에 일시 봉안하였다가 1673년(현종 14) 5월 5일 이곳 용연사에 금강계단을 건조하고 봉안하게 되었다.

금강계단은 용연사 맞은편 서북쪽 200m 지점에 하나의 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달성 용연사 금강계단' 현판이 있는 보광루 아

후기의 불상으로 2014년 1월 20일 보물 제 1813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보물로 재 지정되었다. 1655년(효종 6) 조선 중엽의 대표적인 조각승 도우스님이 불상을 제작하여 용연사에 봉안하였다. 도우스님은 용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제작하기 2년 전인 1653년(효종 4) 대구 율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용연사와 율흥사의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특징이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



◇보물 제539호로 지정된 불사리를 봉안한 금강계단.

용연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비슬산에 자리 잡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의 말사이다. 914년 보양화상이 창건하였고, 1419년에 천일스님이 중건하였다.

문화재로는 불사리를 봉안한 금강계단이 있다. 1971년 7월 7일 보물 제539호로 지정되었으며, 높이는 2m이다. 2021년 11월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보물로 재 지정되었다. 이 계단은 1673년에

완성되었는데, 통도사 불사리계단의 형태를 본떠 만들었다.

부처님 사리는 원래 양산 통도사에 있던 것으로, 사명대사가 제자 청진을 시켜 이 절에 봉안한 것이다. 금강계단에 봉안된 석가모니 부처님 사리는 신라 선덕여왕(632-647) 때의 고승인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구법하고 돌아오는 길에 가져와 두 개의 함에 넣어 통도사에 봉안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 때 통도사의 사리탑이 파괴되어

### 통도사 불사리계단 형태 본 떠 금강계단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불교조각사에 귀중

래 계단을 올라서면 적멸보궁이 있고, 그 뒤에 금강계단이 있다. 금강계단은 정방형의 이중 기단 위에 원형의 꺾대기 겹으로 새겨진 정방형 꺾돌을 놓고, 그 위에 석종형 탑신을 올렸다.

탑신은 맨 아랫부분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통이 넓어지다가 중앙 부분을 지나면서 차츰 줄어들어 절에서 흔히 보는 범종을 그대로 닮았다. 윗부분은 구슬 무늬를 한 줄로 빙 두르고 나서 겹으로 된 연꽃무늬를 한 바퀴 돌리고, 그 위로 꽃받침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 봉오리를 봉긋하게 새겨 마무리하였다.

용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조선

으며, 보물로 함께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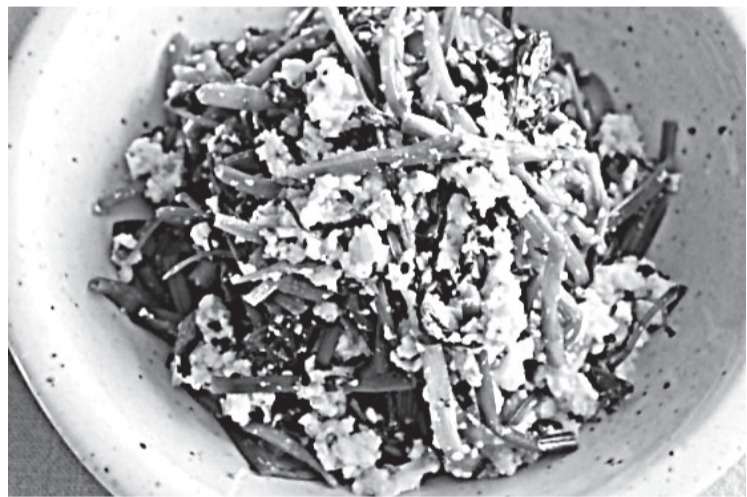
용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복잡 유품은 복잡 후령통 3점을 비롯하여 조성 발원문 8점, 복잡 전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잡 유품은 조성 당시의 원형을 갖추고 있어 불교 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또한 조성 발원문을 통해 정확한 조성 시기, 봉안 사찰, 조성 주체, 제작자 등을 알 수 있어 17세기 불상 연구의 기준점이 된다. 1762년(영조 38)의 중수 개금기까지 포함하고 있어 불상의 중수 개금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정리 여여망>

## 사찰음식 배워보기 두부 미나리 무침

\*재료: 두부 1모, 돌미나리 1단, 파, 마늘, 간장 1스푼, 참치액 1스푼, 소금 약간, 깨소금 1큰술, 참기름 2큰술

\*만드는 법:

1. 끓는 물에 두부를 넣고 3~4분 동안 데친 후 찬물에 식힌다.
2. 식힌 두부를 면보에 넣고 물기가 없도록 짰다.
3. 미나리는 끓는 물에 살짝 넣었다 빼서 꼭 짜지 않도록 한다.
4. 소금을 제외한 양념을 넣고 두부에 밑간을 한다.
5. 양념한 두부에 미나리 소금을 넣고 살살 버무린다. <정리 주향진성>



### 불상생과 방생의 공덕

## 생명사랑 이야기 100

### 92 행복한 사람

14세기 중국 명나라 때 왕양빈(汪良彬)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대부분의 돈을 동물을 사서 놓아주는데 사용했다. 그의 살림살이는 중류층 정도로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으나 매우 검약했으며 간소하게 살았다.

어느 봄날, 그의 생일날이 돌아오자 친지들이 그를 위해 연회를 열려고 했다. 그것을 알게된 왕양빈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나를 위해서 뵈기를 해주고 싶다면, 연회할 돈으로 동물들을 사서 놓아주게. 그것이 내게는 최고의 생일 선물이다."

연회를 준비하던 친지들은 감동하여 그의 뜻대로 했다. 마침내 그 해에 그는 예년보다 두 배나 더 많은 동물들을 풀어주게 되었다.

그후 몇 년이 지나, 그의 이웃이 물소를 푸주한에게 팔려고 하였다. 물소가 너무 늙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물소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주인에게서 도망쳐 곧장 왕양빈에게 달려왔기 때문이다.

늙은 물소는 왕양빈 앞에 무릎을 꿇었고 마치 목숨을 구해주시기를 비는 것처럼 보였다. 왕양빈은 물소 주인을 불렀다. 주인으로부터 기구한 사연을 들은 왕양빈은 푸주한에게 얼마를 받을 작정이었는지 물었다. 주눅이 풀린 금액을 제시하는 물소 주

인에게 왕양빈은 그 금액을 주고 물소를 받았다. 그리고 그 늙은 물소가 죽을 때까지 돌보아주었다.

자식들은 말하지 않아도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게 되어있다. 동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왕양빈의 자식을 또한 아버지에게 보고 들은대로 자라 사람들에게도 자비로웠다.

또한 왕양빈은 자기 일을 성실하게 했으므로, 자식들도 학교공부를 정성껏 했다. 그들은 부모에게 순종했고, 열심히 일하여 마침내 중앙정부의 매우 높은 직위에 이르게 되었다. 왕양빈이 자비와 선행으로 살았다면 자식대에서는 집안의 명예와 영광까지 이루어

었다. 왕양빈은 오랫동안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며 죽을때도 아무런 고통이나 불편이 없었다. 그가 죽을 때, 마치 명상하기 위해 앉아있는 스님처럼 고요하고 차분해 보였다. <중국 명나라 고승 연지 주광스님>

## 청계사 정기법회 안내

- ◇ 초하루 법회  
음력 매월 1일 오전 10시 30분  
(회주 종상 큰스님 또는 주지스님 법문)
- ◇ 3일 신중기도  
음력 매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 보름법회  
음력 매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다라니주력기도)
- ◇ 지장재일 법회  
음력 매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광명진언사경)
- ◇ 관음재일 법회  
음력 매월 24일 오전 10시 30분(금강경독송)
- ◇ 어린이·청소년 법회  
매월 2, 4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불교 대학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 불교 경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 시민선원  
매주 월, 수, 오후 2시, 저녁 7시  
경내 선불장
- ◇ 마사회 법회  
매월 첫째주 월요일 11시  
정계사 설법전
- ◇ 서울구치소 법회  
매주 수요일  
서울 구치소
- ◇ 의왕경찰서 법회  
매월 1회  
의왕경찰서

- ◇ 새벽 예불  
매일 새벽 4시
- ◇ 사시마지 기도  
매일 오전 10시 30분
- ◇ 저녁예불  
매일 저녁 6시 30분
- ◇ 문의  
종무소 (031)426-2221/426-2348  
은행계좌:109-058786-01-413  
중소기업은행 (예금주:정계사)

### ※ 차량안내

미가참치(구 오성갈비)앞에서 매일 오전 9시와 10시에 출발합니다. 초하루나 큰 법회(임춘, 초파일, 칠석, 동지)에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수시로 운행합니다. 내려가는 차편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 알립니다

청계사보는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를 기다립니다. 또한 '청계사보'를 함께 만들 신심 있는 출판부원을 찾습니다. 신문제작과 법보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문의 : 청계사 출판부
- 부장 : 조여래장 010-8382-2125
- 총무 : 주향진성 010-3745-4525

메일주소 : cksb108@hanmail.net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세상 끝까지 간다. 녹향원은 의왕시 청계로376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로 청계사에 운영·지원하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이야기

웰컴투 우리집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이 되길...



2020년 9월 우리 시와 지역주민, 후원자, 자원봉사자, 거주가족 모두의 정성으로 쌓아올린 'Dream House'를 완공하고 입주식은 하였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2022년 9월 1일 ~ 9월 30일까지)

Table with 5 columns: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전월이월금. Total income: 5,532,270; Total expenditure: 9,377,600.

녹향원 후원자 명단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List of donors and amounts: 직접후원 (5,000원~10,000원), 자동납부 (5,000원~10,000원), 후원금: 15,000원~1,000,000원.

물품 후원

임유경-포도, 사과, 유병주-음료수, 주방용품세트, 삼미주유소-쌀, 안송희-사과, 빵, 최형용-포도, 한상준-과일세트, 박홍숙-비타500, 김예식-목장갑, 고무장갑, 갈래, 오종국-복숭아, 인덕원파리바게트-빵...

새 후원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등불

행복한 삶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로 인해 텐션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떨어질 수 있다. 우리의 삶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이루어지려고 고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성행스님 <청계사 주지 녹향원 이사장>

복잡한 시대일수록 소소한 것에 행복을 찾고

나 스스로 자각 하여 생각하는 삶 이어가자

된 곳이다' 라고 했듯이 남과 자꾸 비교할수록 내 행복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의 처해진 생활 환경과 여건 등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같이 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의 길을 찾고 함께 하면 행복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생활의 지혜

- 쌀통에 사과를 넣으면 햅쌀처럼 신선함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사과를 같이 넣어두면 좋다.
• 굴 오래 보관하기 겨울철에 즐겨 찾는 굴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보관하다 보면 오히려 먹지 못하고 썩어서 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이달의 후원금

금 5,532,270원

후원금을 보내주시려면

국민은행 : 870501-00-008169 (예금주-녹향원)

녹향원이 법인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후원금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후원을 계획하시는 후원자분들은 위의 후원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CMS 자동이체는 녹향원을 방문하시거나 매달 초하루법회에서 후원모집 부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후원가족 자원봉사자 모집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1회 학습지도, 청소, 목욕봉사를 합니다.

녹향원 : 031)426-6698 청계사 : 031)426-2348, 2221 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녹향원 자원봉사 명단

354-A지구 국제라이온스클럽, 하모니사랑



후원자님! 소중한 인연과 덕이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예금계좌 : 국민 870501-00-008169 녹향원

12-column horoscope chart with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advice. Includes a sidebar with '운명' (Destiny) and '이해의 지혜' (Wisdom of Understanding).